

## 사랑과 정의의 긴장관계를 통한 기독교 윤리의 자리

- 폴 리퀴르의 해석학적 윤리를 통한 사랑과 정의 이해 -

변경원 (이화여자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사랑 담론의 해석학적 의미

1. 두 가지 사랑 개념 아가페와 에로스
2. 시 상징으로서의 사랑담론: 사랑의 시학

### III. 정의의 해석학

1. 작은 윤리학
2. 존 롤즈의 정의의 원칙

### IV.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을 통한 기독교 윤리의 자리

1. 등가의 논리와 넘침의 논리를 통한 새 계명과 황금률 텍스트의 해석
2. 사랑과 정의의 긴장된 중재의 텍스트 앞에서 출현하는 윤리적 주체

### V. 나가는 말

---

• ABSTRACT •

---

The Place of Christian Ethics through the Tension between Love and Justice: The Understanding of Love and Justice through Paul Ricoeur's Hermeneutic Ethics

Byun, Kyung Won

This article aims first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the union between love and justice, and later to show the possibility of the creation of the Christian ethic subject through the Ricoeur's Hermeneutic. Christian Love, *Agape*, has been mostly understood as the opposite of distributive justice, which represents the economic equality. Ricoeur insisted that love should be combined with justice. Ricoeur argued that we must resist to establish the 'feature of moral judgement' suggested by Gene Outka. He thought that we could obtain the concept of lov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discourse. According to Ricoeur, the discourse of love has three characteristics: praise, the imperative command, and metaphor. Ricoeur accepted the justice theory by John Rawls as a discourse of justice. Ricoeur regarded anti-utilitarianism as the justice theory. Ricoeur attempted to unify love and justice dialectically. He pursued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logic of equivalence, illustrated by the golden rule, and the logic of superabundance, incarnated in the new commandment. He thought that the commandment of love does not abolish the golden rule, but instead reinterprets it in terms of generosity. Ricoeur insisted that people could appreciate the new self before the newly interpreted text. This new interpreted text can be regarded as a turning point in creating the new Christian ethic subject.

**Key words:** Paul Ricoeur, Love, Justice, Logic of Superabundance, Logic of Equivalence

---

## I. 들어가는 말

사랑과 정의라는 개념은 연합이 불가능해 보인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계명의 불가능한 요청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저항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 순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기독교적 사랑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기독교적 사랑의 불가능한 요청에 대한 가능한 실천을 수행해야하는 당위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는 정의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저항과 투쟁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러한 양자택일의 문제를 세상과 교회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의는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목표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의의 실현보다는 사랑의 실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랑과 정의를 대립하는 것으로 여기며 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 둘이 모두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그 명령법적 표현을 통해 실천과 행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받은 만큼 주라’는 황금률로 표현되는 정의의 원칙 역시 행위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 두 행위는 서로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난점을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렇게 연합 불가능의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개념을 폴 리코르(Paul Ricoeur)가 제시하는 긴장된 중재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연합가능함을 보이며 그렇게 연합이 가능해지는 자리에서 기독교 윤리의 확립 가능성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리코르가 제시하는 중재의 길은 대립을 유지하면서도 대립을 넘어서실 수 있는 텍스트의 해석에 작동하는 창의적 상상력에 의지하고 있다.

리콰르는 호혜적이라는 개념의 특징을 갖는 정의의 관념과 그와는 반대인 자비로움이라는 특징을 갖는 일방적 사랑의 관념이 서로 불균형함을 인식한다.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를 해결하는 리콰르의 방식은 어떤 체계적인 이론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해석을 통해 정의와 사랑의 대립되는 두 개념의 긴장을 통한 변증법적 화합을 형성해 내는 해석학적 방법이다. 리콰르는 서로 대립 관계를 형성하며 연합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이해를 담론의 해석을 통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이해관계로 보려고 한다. 사랑과 정의의 결합을 추구하며 리콰르가 채택하는 생생한 긴장의 자리는 성서 텍스트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이다. 이 두 텍스트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황금률이 병렬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리콰르는 연합 불가능한 두 개념이 연결된 맥락에 들어있는 산상설교와 평지설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두 개념의 연합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리콰르는 자신의 저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sup>1)</sup>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 연구에서 흔히 ‘작은 윤리학’으로 명명되는 윤리학 이론을 정립한다. 리콰르는 이 ‘작은 윤리학’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의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윤리이론과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이론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성립된 윤리이론은 또한 롤즈의 정의론과의 연결을 통해 더 확고해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먼저 리콰르가 이해하는 사랑은 규범의 나열이 아닌 담론의 차원에서 언급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리콰르가 사랑과 양립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선택하는 롤즈의 정의론에 관한 이해를 시도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1) 한국 리콰르 연구자들의 경우 이 책의 제목을 「남 같은 자기 자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으로 김웅권의 번역을 채택하므로 역자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리콰르가 사랑 담론과 정의의 원칙이 함께 들어있는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를 통해 어떻게 사랑과 정의의 연합을 시도하는 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기독교 윤리는 실천을 전제로 성립된다. 실천이란 자율적 인간의 행위를 의미한다. 자율적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믿는 바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좁게는 자신에서 넓게는 인류 전체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끊임없는 자아성찰이다. 리콰르는 텍스트 앞에서 해석되는 자기이해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기이해를 하는 주체는 사랑과 정의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적 자리에서 있는 주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담론의 해석이다. 리콰르는 그렇게 해석된 텍스트 앞에서 선 ‘나는 ‘자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세계에 나를 개방한 주체는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텍스트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텍스트라면, 그 텍스트 앞이 기독교 윤리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사랑 담론의 해석학적 의미

### 1. 두 가지 사랑 개념 아가페와 에로스

일상어 속에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양가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사랑을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숭고한 그 무엇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한편으로는 저급하고 성애적인 욕망과 동일시되며, 종교적 금욕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철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사랑은 하나의 개념이 아닌 두 개의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 하나는 아가페이고, 다른 하나는 에로스이다. 기독교인들은 대개 사랑을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이 두 대립적 개념으로 이해한다.<sup>2)</sup>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전자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론적 목표로, 후자는 드러내 놓고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에로스를 이렇게 이해하는 배경에는 ‘에로스’라는 개념을 악마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적 경향이 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희랍어 에로스(eros)는 육체적이며 격정적 충동의 힘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호메로스에게 에로스는 남녀 간의 성적 사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에로스는 파괴적인 힘으로 인간을 지배하며 그 힘으로 인간을 광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에로스는 이성과 지혜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그러나 한편, 에로스는 꽃들 위를 거니는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신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에로스가 결합과 조화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로스는 이러한 감미로움에도 불구하고 강한 독을 가지며 부드러운면서도 몰아치는 광기를 상징하기도 한다.<sup>3)</sup> 결국 에로스는 그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에도 불구하고 파괴적이고 악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에로스가 육체적 사랑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랑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타적 사랑이 아닌 인간 개인에 갇혀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점에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는 이타적 사랑을 세우는 기독교의 아가페와는 양립이 어렵다. 그러므로 금욕적 기독교 신앙이 우세한 곳에서 사람들은 에로스에서 벗어나 성서에서 사용되는 아가페로 옮겨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 
- 2) 예를 들면 니그렌(Anders Nygren)과 같은 학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아가페와 에로스」에서 기독교 전 역사를 아가페 유형과 에로스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석한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가페와 에로스의 동기가 경쟁관계에 있었고, 어느 동기가 우세하냐에 따라 당대 기독교의 성격이 결정되었다고 보았다. 참고: Nygren, Anders, *Agape and eros: the Christian idea of love*, 고구경, 「아가페와 에로스」(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니그렌에 대한 연구는 한송홍, 〈안더스 니그렌의 아가페와 에로스〉, 장로회신학교출판부, 『철학적 신학』, (서울: 2006), 293-305 참고.
- 3) 장욱, 〈에로스와 아가페: 인간적 사랑과 카리타스〉, 한국카톨릭철학회, 『카톨릭철학』 제 4권, (서울: 2002), 9.

신약성서에서 기독교의 사랑을 가리키는 고유한 용어는 아가페이다. 성서에 나타난 아가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보통 성서에서 신과 인간의 사랑은 그리스어 ‘아가파오(agapao)’로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어에는 아가파오(agapao)라는 동사는 있지만 ‘아가페’라는 명사는 없다. ‘아가페’는 히브리어 성서를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생긴 용어이다. 『칠십인역 성서』의 번역가들이 구약성서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헵’을 그리스어 아가페로 옮긴 후 신약성서에도 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신약성서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약성서 저자들이 기독교적 사랑의 개념이 그리스의 통속적인 사랑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을 피하려했기 때문이다.<sup>4)</sup>

아가페를 추앙하고, 에로스를 금하는 기독교 전통은 오늘날 교회와 신학 안에서도 여전히 지배적 경향을 보인다. 진 아웃카(Gene Outka)는 자신의 저서 『아가페: 기독교 사랑의 윤리적 분석』에서 1930년대부터 현재<sup>5)</sup>에 이르기까지 유대-기독교 윤리학자와 신학자들의 신학저술 속에서 사랑에 관한 ‘기본적 규범내용’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그는 미국의 분석철학적 방법론을 통해 아가페의 기본적 규범내용을 “이웃에 대한 동등 배려”, “자기 이익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 자기희생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역사성”, “아가페적 행동을 가능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이 아닌) 상호성의 도입”<sup>6)</sup>이라고 유형화한다. 리콰르는 기본적 규범 내용을 유형화하는 아웃카의 이러한 분석방법이 개념적 부적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그가 제시한 기본특징들은 그가 연구를 통해 여러 차례 고통스

4) 서병창, <카리타스에 의한 에로스와 아가페의 종합>, 중세철학회, 『중세철학』, 제 10권, (서울: 2004), 139.

5) 이 책의 출판 년도는 1972년이다. 아웃카가 1930년을 시작점으로 잡은 이유는 니그렌이 사랑을 아가페와 에로스로 나눈 해가 1930년이기 때문이다.

6) 진 아웃카, *Agape: An Ethical Analysis*, 정경화, 『아가페: 기독교 사랑의 윤리적 분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6, 47, 61.

럽게 확인했던 변이나 불일치, 애매함을 도외시한 대가로 확정된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인 세 번째 특징이 두 번째 특징과 전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7)</sup> 리콥르는 사랑과 정의의 연합을 시도하기 위해 아웃카가 제시하는 ‘기본적 규범내용’을 잠시 괄호치기 한다. 리콥르는 궁극적으로는 아웃카가 제시한 규범내용을 숙고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즉 리콥르는 아웃카가 제시하는 규범적 내용을 거부하거나 제거해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담론의 해석이라는 우회로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리콥르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은 “궁극적인 규범적 기준이나 척도 혹은 가치와 의무에 대한 판단의 원리로서 사랑을 다루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sup>8)</sup>고 주장한다. 17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종교철학자인 블라즈 파스칼(Blaise Pascal)은 사랑과 정의는 서로 다른 질서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사랑과 정의는 불균형의 논리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파스칼에게 사랑은 더 없이 높은 질서에 속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초자연적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의 몸과 정신에서 도출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무엇이다.<sup>9)</sup> 리콥르는 파스칼의 이러한 생각이 사랑과 정의의 실천적 중재방법을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비판적 관점에서 저항의 구체적 방법으로 “분석철학에 의해 도출된 일종의 개념적 분석을 통한 수준 낮추기에 저항해서 때로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담론을 찾는 것”<sup>10)</sup>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리콥르는 상황에 대

7) Ricoeur, Paul, “Love and Justice”, *Figuring the Sacred: Religion, Narrative and Imagination*. 최현, 〈사랑과 정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정치론」, 제 7호, (서울: 2005), 492.

8) 같은 글.

9) Blaise Pascal, trans. A. J. Krillsheimer, Hatmondsworth, *Penses*, (England: Penguin, 1966), 125. 같은 글 재인용.

한 고려 없이 어느 곳에서나 소유해야하는 아가페의 규범들은 사랑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리콥르에게 담론은 그가 전개하는 해석학적 이론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 리콥르는 기호에 기초한 구조주의 언어학 대신 문장에 기초한 담론의 언어학을 자신의 해석학에 수용한다. 그 이유는 기호학적 모델이 ‘약호를 다루기 위해 메시지를, 체계를 다루기 위해 사건을, 구조를 다루기 위해 의도를, 그리고 공시적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의 체계성을 위해 행위의 자의성’을 괄호치고 무시했던 것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다.<sup>11)</sup> 리콥르가 이렇듯 기호가 아닌 담론의 언어학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그의 해석학이 의미론을 거쳐 가기 때문이다. 리콥르에게 있어서 언어활동의 본질은 항상 언어가 ‘무엇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는 의미론에 있다. 담론의 언어학에서는 기호를 기초로 하는 랑그의 언어학에서 사라졌던 지시 관계, 대화자, 화자 등의 요소가 살아나면서 의미의 문제가 새롭게 정의될 여지가 생겨난다.<sup>12)</sup>

리콥르의 언어학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무엇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에 대한’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한 말들이 삶의 이야기라는 형태로 담론으로 고정된 것이다. 리콥르는 이런 텍스트 앞에서 떠오르는 ‘할 말’들이 보여주는 텍스트의 세계 앞에선 ‘나’는 새로운 ‘자기’로 탄생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리콥르가 말하는 텍스트를 매개로 하는 주체이해는 ‘한 말을 통해 ‘할 말’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사랑의 이념 역시 규범의 목록이

10) Ricoeur, Paul, 최현, 앞의 글, 493.

11) Ricoeur, Paul, *(Le) Conflit des Interpretations*, 양명수, 「해석의 갈등」(서울: 아카넷, 1969), 93.

12) 윤성우, 「폴 리콥르의 철학」(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94-97.

아닌 담론의 해석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랑과 대립되는 정의의 원칙을 연합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그렇게 새롭게 해석된 텍스트 앞에서 형성되는 자기 이해를 가진 주체는 윤리적 행위주체가 될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리콤프르는 성서 속의 사랑담론을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한다.

## 2. 시 상징으로서의 사랑담론: 사랑의 시학

리콤프르에게 성서라는 책은 개념 언어가 아닌 은유 언어로 쓰여진 텍스트이다. 그에게 은유란, 시 상징 또는 시적 상상력의 영역에 속한다.<sup>13)</sup> 시적 상상력은 문학작품의 한 유형으로서의 ‘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시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시의 범주가 일상 언어나 특히 자연과학적 담론과는 달리 대상을 ‘묘사’하는 기능이 아닌 텍스트의 세계를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묘사 단계에서 관념적 의미는 실물지시를 통해 완성된다. 그러나 시적 기능은 이러한 실물지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리콤프르는 시적 기능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물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는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적 담론은 현존하는 대상 자체를 묘사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실물지시 기능을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시란 사실 그 자체를 묘사하는 실물지시의 영역과는 거리를 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적 담론에는

13) 리콤프르의 텍스트 해석학은 이중의미를 지닌 표현이라고 정의되는 상징을 해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리콤프르의 상징은 기호를 사용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상징으로 보는 카시러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이다. 그러나 플라톤적 전통을 수용하여 상징을 유비(아날로지)로 보는 관점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는 상징을 우주 상징, 꿈 상징, 시 상징 또는 시적 상상력으로 구분한다. 우주 상징은 종교현상학에, 꿈 상징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에 속한다. 시 상징은 거룩한 존재의 현현을 말하는 우주 상징과 욕망의 기호론이 되는 꿈의 상징을 아우르는 차원이 될 수 있다.

지시가 없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리콥르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시적 담론은 묘사 기능을 정지시킨다. 시의 저술 목적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콥르는 언어가 시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묘사기능을 괄호치기하고, 동시에 주관과 객관의 일치로 정의되는 진리관이나, 검증에 의한 진리의 규정 방식을 폐기한다고 말한다.<sup>14)</sup> 이렇게 묘사단계의 지시기능을 중지하는 것을 리콥르는 지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시가 ‘미결상태’에 처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시를 미결상태에 처하게 하는 이유는 현실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이다. 텍스트의 지시가 미결 상태에 처하게 되면, 텍스트의 지시를 유예시킴으로써 텍스트를 세계와 관계없는 것으로 만든다. 리콥르는 이때 텍스트는 현실을 대체하는 다른 모든 텍스트와 자유롭게 관계 맺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sup>15)</sup> 사랑담론이 불균형을 이루는 정의담론과의 만남을 통해 변증법적 종합을 이룰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사랑담론과 정의담론의 변증법을 논하기 전 이 부분에서는 우선 리콥르가 분석한 사랑담론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리콥르는 성서에 들어있는 사랑담론의 특성을 시적 상상력의 영역에 속하는 ‘칭송, 명령, 은유의 힘’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리콥르는 정의담론과 화해를 추구할 성서의 사랑담론의 첫 번째 특징을 사랑과 칭송의 연관에서 찾는다. 그는 사랑의 담론은 사실상 칭송담론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칭송담론의 대표적인 형태는 ‘찬양, 애원, 감사’라고 본다. 이렇게 칭송담론을 유형화하는 것은 또다시 사랑을 개념적 분석의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일까? 리콥르는 우리가 찬송가라는 본래적 언어형태에 어울리는 칭송

14) Ricoeur, Paul, "Toward a Hermeneutic of the Idea of Revelation", *Essays on Biblical Interpretation*, 대전신학대학전망편집부, <계시관념의 해석학 II>, 대전신학대학출판부, 『신학전망』, 제 66호, (대전: 1984, 가을), 25-26.

15) Ricoeur, Paul, *(Du) texte a l'action: essis d'hermeneutique II*, 박병수 외, 『텍스트에서 행동으로』(서울: 아카넷, 1986), 167.

의 본래적 특징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칭송은 축복담론, 행복의 문학형식, 찬양담론 등의 담론형식 속에 칭송이 들어있는 것이다.<sup>16)</sup> 이것은 결국 사랑담론은 해석학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리콥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의 불균형적 요소를 극복하는 변증법은 사랑을 아웃카가 말한 것과 같이 규범 내용을 분리하여 범주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시학이 여타 담론과 연관되어 담론의 해석을 통해서만 사랑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리콥르는 설화체 담론이 “시적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면 이야기가 고양되고 또 기원의 색조를 띠게 된다”고 말한다.<sup>17)</sup> 칭송이 성서적 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시에 들어있는 핵심낱말들은 의미의 증폭, 예기치 않은 동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다른 담론과의 상호연결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낱말들은 이중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중의미에 노출된 사랑담론은 해석을 기다리는 담론이 된다. 리콥르에게 이중의미란 1차 의미를 거쳐 2차 의미를, 직접의미를 거쳐 간접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으로 해석 작업이 된다.

리콥르가 제시하는 사랑담론의 두 번째 특징은 기이하게도 사랑담론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와 같은 불편한 명령적 형식을 띠는 것이다. 리콥르는 성서담론 속의 명령체 진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상징적 표현 속에 들어있는 실천적 면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뜻’은 사고를 통해 이리 저리 궁리하고 탐색해 볼 수 있는 어떤 계획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리콥르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뜻은 실천에 옮겨야 할 지시 내지는 명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16) Ricoeur, Paul, 최현, 앞의 글, 493.

17) Ricoeur, Paul, “Toward a Hermeneutic of the Idea of Revelation”, *Essays on Biblical Interpretation*, 대전신학대학전망편집부, <계시관념의 해석학>, 대전신학대학 출판부, 『신학전망』, 제 65호, (대전: 1984 여름), 99-100.

야 한다.<sup>18)</sup> 명령을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법의 의무로 이해할 경우 이러한 명령은 강제와 연결된다. 리콤폴르에게 있어 '선의지'는 칸트의 의무론적 문제를 제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칸트의 의무론은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리콤폴르는 칸트의 보편성 관념은 의무의 관념을 특징짓는 '강제 (constraint)'의 관념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칸트에게 있어, 의지는 곧 모든 합리적인 존재들에 공통적인 실천이성이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제한적으로 구성되며, 감성적 경향에 의해 경험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한한 의지이다. 이러한 유한한 의지에게 있어서 무제한적 선은 의무·명법·도덕적 강제의 형태를 띤다. 리콤폴르가 선의지 개념과 의무에 의한 행위 개념을 서로 대체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이러한 유한한 의지에 국한된 것이다.<sup>19)</sup> 그런데 칸트의 의무론에 따르면, 사랑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수치스럽게 들린다. 칸트는 이것을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존중하는 '실천적' 사랑과 윤리학과 상관없는 '병리학적' 사랑을 구분함으로써 이런 난점을 비껴한다. 리콤폴르는 '사랑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난점을 사랑이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지는 지위와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그런 의문에서 거리를 둔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창문을 열라는, 복종을 요구하는 일상적 명령처럼 단순이라는 행동 수준에서 변화를 가져올 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그리고 윤리적 수준에서 이 계명이 공리주의적 원리나 칸트의 정언명령처럼 도덕적 원리, 곧 부수적인 행동원리를 지배하는 일차적 명제에 비견될 수 있을까?"<sup>20)</sup>

리콤폴르는 이 문제를 프란츠 로젠츠바이크의 『구원의 별』(*Star of Redemption*)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로젠츠바이크는 사랑하라는 계명

18) 위의 글, 93.

19) 김종식,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이론에 관한 리콤폴르의 해석연구>,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 39집, (서울: 2007), 53.

20) Ricoeur, Paul, 최현, 앞의 글, 495.

을 출애굽기의 어투도 레위기식의 어투도 신명기 식의 어투도 아닌 “나를 사랑해줘!(Love me!)”라는 아가서의 어투를 채택한다. 리콰르가 로젠츠 바이크가 말하는 아가서의 명령법을 채택하는 것은 그 명령법이 명령 본연의 용도에서 벗어나 칭송담론과 마찬가지로 시적 상상력이라는 담론형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나는 명령문의 이러한 특이한 사용을 앞에서 언급한 칭송, 찬송가, 찬양, 축복 등과 같은 담론형식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감히 명령문의 시적 사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으로 답하고자 한다.”<sup>21)</sup> 리콰르는 ‘나를 사랑해줘’라는 계명과 칭송담론 사이에는 칭송, 찬양, 축복담론과 연결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리콰르는 사랑담론이 명령법형식의 계명의 형태를 띠다 해도, 그 담론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적 담론들과의 연관 속에서 마치 부채꼴 모양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콰르는 명령담론 하나만을 따로 떼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해야 됨을 주장하는 것이다.<sup>22)</sup>

리콰르는 사랑담론의 세 번째 특징을 사랑의 표현과 연결된 ‘은유의 힘’이라고 말한다. 리콰르는 사랑이이라는 것이 수많은 감정들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감정은 아가페와 에로스의 유비를 생산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리콰르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양분한 니그렌 같은 학자는 사랑의 감정들이 이와 같은 은유담론을 생성해 낼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리콰르에게 은유는 칭송 담론과 명령체 담론과 마찬가지로 시 상징, 즉 시적 상상력의 영역에 속한다.<sup>23)</sup> 시 상징

21) 위의 글, 497.

22) 위의 글, 496-497.

23) 리콰르는 상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주 상징, 꿈 상징 그리고 시 상징 또는 시적 상상력이다. 리콰르는 이 세 가지 상징이 모두 그 출현을 언어 요소에 두고 있다고 본다. Ricoeur, Paul, 양명수, 앞의 책, 17.

은 해석을 기다리는 담론이다.

지금까지 리콥르가 사랑을 어떤 규범의 나열에서 벗어나 해석을 요하는 담론의 영역, 즉 텍스트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렇게 리콥르가 사랑을 담론의 차원에서 논하는 것은 그럴 때만 정의의 원칙과의 변증법을 통해 긴장된 중재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III. 정의의 해석학

#### 1. 작은 윤리학<sup>24)</sup>

폴 리콥르는 자신의 윤리학적 지향을 “정의로운 제도들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그리고 타인을 위한 ‘좋은 삶’의 목표”<sup>25)</sup>라고 말한다. 이것은 윤리가 주체의 의지적 행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윤리학적 지향 위에서 자신의 정의 관념을 규정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리콥르의 ‘정의’ 개념은 그가 주장하는 ‘작은 윤리학’의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dikaiosyne)’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하며, 옳은 태도로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인간의 좋은 성정, 즉 덕이라는 측면에서 정의의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sup>26)</sup> 리콥르는 이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덕의 윤리학’을 자신의 윤리학적 지향으로 채택한다. 덕의 윤리학이란 응용 윤리학이나 도덕철학과 같이 절대적

24) 리콥르의 저서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은 ‘자기성’의 탐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연구에서 그는 자신의 윤리학을 정초한다. 이것을 보통 ‘소윤리’ 또는 ‘작은 윤리학’이라고 부른다.

25) Ricoeur, Paul, *Soi-meme comme un autre*, 김웅권, 「타자로서 자기 자신」(서울: 동문선, 1990), 232.

26) Aristotle, *Ethica Nicomachea*, (NE, 1129a) 최명관, 「니코마코스 윤리학」(서울: 창, 2008), 143.

인 용어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낙태, 안락사, 전쟁 도발 등)이 '선한 지' '악한지'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덕의 윤리학은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덕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다.<sup>27)</sup>

리콤폴르는 윤리(éthique)와 도덕(morale)의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는 이 두 용어가 역사적으로 또는 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관례를 따라 분리한다고 말한다. 리콤폴르는 윤리와 도덕의 구분을 '목적론적 목표'와 '의무론적 규범'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범주화한다.

“독자는 목표와 규범의 구분에서 두 개의 유산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산으로 여기서 윤리학은 그것의 목적론적 관점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다른 하나는 칸트의 유산으로 여기서 도덕은 규범의 의무적 특성에 의해, 따라서 의무론적 관점에 의해 정의된다.”<sup>28)</sup>

리콤폴르는 이 두 윤리이론이 서로 배척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

27) Karl, Simms, *Paul Ricoeur*, 김창환, 『해석의 영혼 폴 리콤폴르』(서울: 엘피, 2009), 189.

28) Ricoeur, Paul, 김웅권, 앞의 책, 230-231. 참고: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의 내용에 관한 요약은 이상철, 〈분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신학연구』, (오산: 2015), 61-62쪽을 참고하라.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내게 선(the good)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심하는 목적론적 윤리학의 계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에피쿠르스학과, 영국의 경험론, 공리주의를 거쳐 현대의 공동체주의로 이어진다.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한 개인의 혹은 공동체적 목적, 이상, 목표 등이 윤리적 이슈로 등장한다. 행위의 동기보다는 그 행위가 일으키는 결과에 방점이 있다고 하여 '결과주의 윤리학'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가능성, 즉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달려가는 인간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기실현을 향한 분투를 긍정하는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에 무게를 둔다. ... 칸트가 대표적 인물이고, 현대에 와서는 하버마스의 담론윤리학으로 계승되었다. 이들은 목표와 이상에 따라 행위가 달라지는 목적론적 윤리와는 달리 조건에 관계없이 내가 따라야 할 최고법칙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점은 윤리가 근원적인 반면, 도덕이 파생적이라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그의 윤리이론은 ‘도덕에 대한 윤리의 우위’를 밝히는 것에 있다. 그가 말하는 윤리란 관례적으로 보자면 ‘선하다고 평가된 것’, 즉 ‘선하다고 평가되는 행동의 특징 아래 이루어진 삶의 목표’를 말한다. 이에 대해 도덕이란 ‘보편적인 요구나 구속효과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규범, 의무, 금지사항들’을 말한다.<sup>29)</sup> 인간은 자신의 삶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윤리적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 선택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다. 의무론적 윤리의 특성은 이성적 행동의 목록을 규정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칸트의 정언명법은 이러한 구분을 보여주는 실례가 된다.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간을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이성적 선택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론적 윤리는 인간의 선택이 주는 ‘소망’을, ‘염원’을 무시할 여지가 생긴다. 나의 행위의 준칙이 법칙에 맞도록 하는 것이 이성적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인간이라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해 최선이라고 여겨질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 칸트는 거짓말이 꼭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법칙을 나의 준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개별적 상황 속에서 자기 판단을 믿고 숙고한 결과를 수행해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윤리학은 인간에게 가능한 선, 즉 인간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정치적 공동체의 목적론적 질서를 토대로 발전된

29) 김한식, <이야기 윤리학을 위하여: 폴 리콕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한국해석학회, 『해석학연구』, (서울: 2012), 201.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실제로 플라톤의 초월적 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이 행동을 통해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실천적 선에 관계되는 한 초월적 선에 관한 순수 이론은 무용하다.<sup>30)</sup> 이것은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는 숙고가 아닌, 목적 그 자체에 대한 숙고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목적 그 자체는 개인에게는 충분히 숙고된 형태, 집단에게는 사회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사회가치의 이질성은 소통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결단에 의존해 비극적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에 관한 이론은 그의 ‘실천적 지혜’ 개념과 연관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과 원인을 추구하는 이론적 지식인 소피아(*sophia*)와 개연성과 우연성이 지배하는 인간 행위에 관한 지식으로서의 실천적 지혜인 프로네시스(*phronesis*)를 구분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 미덕에 대한 판단 능력이다. 판단 능력이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곧 실천적 지혜이다. 다시 말해 실천적 지혜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것을 다루는 과학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적 지혜는 특정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실천적 지혜가 실천하는 지혜이고, 실천은 특정 상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sup>31)</sup>

리피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내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실천적 지혜를 윤리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 혹은 좋은 삶을 실천 외부에 두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윤리가 추구하는 ‘좋은 삶’은 자기의 삶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신

30)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편, 『현대사회와 정의』(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26.

31) Sandel, Michael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정의란 무엇인가』(서울: 김영사, 2010), 278-279.

의 삶에 관해서 숙고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한다. 실천적 지혜는 곧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하는 주체의 삶이다. 여기서 숙고란 전체로서의 자기 삶,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리콥르는 숙고를 “프로네시스, 즉 실천적 지혜가 추구하는 길이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프로네시스의 인간(프로니모스)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 추구하는 길”<sup>32)</sup>이라고 해석한다. 즉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콥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천적 지혜는 자기 삶을 고려하는 자기목적성과 좋은 삶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동시에 지향한다고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러한 “좋은 삶은 각자에게 완성의 이상들과 꿈들로 이루어진 성운”<sup>33)</sup>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남’이 아닌 ‘자기’의 삶을 존중하는 것을 ‘좋은 삶’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 기독교 윤리는 나 아닌 남을 위해 사는 전형으로서의 예수의 삶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독교 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리콥르는 우정론을 기초로 이에 대한 답을 한다. 그는 ‘자기’를 ‘존중’하는 목적론적 관점이 근본윤리의 측면에서 ‘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론 차원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리콥르는 ‘자기’와 ‘나’를 구분한다. ‘나’는 ‘남’과 만나면 언제라도 뒤흔들리는 허약한 존재이자, 무의식적 욕망과 자기보존 욕구로 뒤엉킨 존재이다. 그러나 ‘자기’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존재이다. 그래서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sup>34)</sup> ‘나’가 자기성을 유지하듯 ‘남’도 자기성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나’와 ‘남’

32) Ricoeur, Paul, 김웅권, 앞의 책, 236.

33) 위의 책, 242.

34) 김한식, 앞의 글, 203.

은 완전히 분리된 체계라 아니라, 상관관계 속에서 자기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나’를 존중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나’와 ‘남’은 상호성을 형성한다. 리콰르는 이러한 상호성을 통해 우정이 정의와 인접한다고 본다. 우정은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정이 정의는 아니다. 그 이유는 정의는 제도들을 지배하고, 우정은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지배하기 때문이다.<sup>35)</sup>

리콰르의 ‘작은 윤리학’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올바른 제도는 롤즈와 칸트의 의무론적 도덕이 이루고자 했던 주제이다. 칸트와 롤즈의 의무론은 차이가 있다. 칸트는 정의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세우려한 반면 롤즈는 정치제도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려했다. 목적론과 의무론의 결합을 추구하는 리콰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론은 존 롤즈의 의무론과의 조우를 통해 서로 보완될 경우 비로소 의미 있는 정의론이 될 것이라고 여겼다.

## 2. 존 롤즈의 정의의 원칙

리콰르는 사랑과 대립되는 정의의 담론을 존 롤즈의 정의론으로 보려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 정치학자 등이 정의에 관한 학설을 정립해 왔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은 정의의 개념에 관해 다양한 지류를 형성해 왔다.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정의의 논의를 “행복의 극대화, 자유존중, 미덕추구”<sup>36)</sup>라는 세 가지 의미로 압축할 수 있다고 본다. 샌델은 롤즈의 정의론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공동체주의 정의론을 옹호한다. 그는 공동체주의자로서 정의의 한계를 밝히고, 정치철학 안에서 정의가 가진 개념적 힘을 제한하는 것을 추구한다. 샌델은 롤즈의 정의론이 기초하고

35) Ricoeur, Paul, 김웅권, 앞의 책, 248.

36) Sandel, Michael J., 앞의 책, p. 17.

있는 ‘무연고적 자아’ 개념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여 롤즈의 정의론을 ‘의무론적 자유주의’라고 비판한다. 샌델은 이러한 의무론적 자유주의는 사회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리콥르 역시 큰 틀에서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형성하지만 샌델과는 달리 롤즈의 정의론의 긍정적 측면을 수용하여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구축한다.

리콥르에게 정의는 반공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리콥르는 공리주의에 대한 반대를 바로 롤즈의 정의론에서 찾으려는 것이다. “정의에 대한 롤즈의 이론이 지닌 반목적론적인 방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언급해야 할 점은 그의 이론이 정의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목적론적 해석, 즉 공리주의에 반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다.”<sup>37)</sup> 1971년 출판된 롤즈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이후 정의에 관한 학문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롤즈의 정의론은 19세기 이후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쟁적 시장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하자, 수정자본주의의 요구가 팽배해진 가운데 국가의 경제개입을 필요로 했던 시점에 생성되었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기존 자유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없이 사적 경제의 무제한적 팽창에 기인한 사회적 불공정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정의론을 모색한 학자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 모두에서 실현 될 수 있는 정의 사회의 구성 원칙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뜻을 『정의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유재산 경제와 사회주의 간의 선택은 계속 남겨두었다.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원칙을 만족시키는 사회기본구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sup>38)</sup>

37) Ricoeur, Paul, 김웅권, 앞의 책, 307-308.

롤즈의 사회정의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정의관인 ‘최소극대화의 원칙’이다. 다른 하나는 특수한 개념으로서의 사회정의관인 ‘정의의 2원칙’이다. 정의의 2원칙은 다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 및 차등의 원칙’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와 같은 롤즈의 정의 개념은 ‘선(善)에 대한 의(義)의 우선성(priority of the right over the good)’<sup>39)</sup>이라는 전제 위에 서있다. 선에 대한 의의 우선성이란, 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를 설정하고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은 선에 대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특정한 견해로부터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도덕보다는 윤리를 우선하는 리콰르는 “진리가 사고체계의 첫 번째 덕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이다”<sup>40)</sup>라고 하는 롤즈의 정의 개념을 덕의 원리로 수용한다.

롤즈는 사회정의의 첫 번째 원칙을 통해 무지의 장막 뒤의 원초적 상황에서 사람들은, 개인이 속하는 사회적 상황은 우연성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므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 수혜자의 복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첫 번째 원칙 하에서 평등한 자유를 기반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으로 제안한다.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정의의 원칙을 리콰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와 발전된 현대판 비례적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공정하게 권리와 재화를 분배하려는 이상(ideal)을 표현하는 것이다.

리콰르는 롤즈의 분배정의라는 이념은 권리의 수학적 평등과 책임에

38)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258.

39) 위의 책, 31-32.

40) 위의 책, p. 3.

따라 이익을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비례적 평등을 포괄하는 평등개념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최상의 정의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롤즈의 정의론에 붙여진 이런 최상의 정의라는 이념 속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들어있다고 본다. 기회의 평등을 통해 완성되는 권리의 평등은 사회 구성원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유 없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들은 정치가와 재벌 등의 행위에 대해 신뢰를 갖고 대할 수 있다. 롤즈는 자신이 제시한 정의의 원리가 사회적 단결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까지 한다. 그러나 리콰르는 무지의 장막 뒤의 주체들을 ‘무연고적 자아’라는 비판을 한 샌델과 마찬가지로 롤즈가 제시한 무지의 장막 뒤에서 결성된 상호의존 감정이 사실은 구체적 인간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회적 위치가 가장 열악한 상황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짐작으로 최소수혜자들에게 최대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적 관계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렇게 이해관계를 무시(disinterest)하는 것은 진정한 정의의 이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리콰르에게는 관념적 인간이 아닌 구체적 관계성을 지닌 인간이 중요하다. 리콰르는 롤즈가 제시하는 공평한 이익이 “모든 사람이 서로 신세를 지고 있다는 진정한 인정과 연대의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는 없다”고 본다.<sup>41)</sup> 그는 인정, 연대, 서로에 대한 감사 같은 이념만이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지평을 형성하기 위한 균형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 균형점이 안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한다. 즉 순간적 균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

41) Ricoeur, Paul, 최현, 앞의 글, 502.

#### IV.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을 통한 기독교 윤리의 자리

##### 1. 등가의 논리와 넘침의 논리를 통한 새 계명과 황금률 텍스트의 해석

리콰르는 이제 자신이 사랑의 시학이라고 명명한 찬송가와 정의의 산문이라고 이름붙인 정의의 원칙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제 이 두 관계의 종합을 꾀해보려는 것이다. 사랑과 정의의 종합을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의 세계 앞에선 나는 사랑과 정의를 이원론적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없게 됨을 보일 것이다.

리콰르는 사랑과 정의가 실천(praxis)과 연결될 때, 서로가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게 되면 서로의 대립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고 본다. 칭송과 찬양이 강조되는 찬송가 속의 사랑은 실천과 연결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 자체의 숭고함으로 찬양되거나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칭송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의 원칙 안에서 사랑은 단지 정의 실현을 위한 동기 부여의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리콰르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검토된 사랑과 정의에 관한 연구를 변증법을 통해 결합하려 한다.<sup>42)</sup> 그가 이러한 결합을 위해 택하는 길은 텍스트 해석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이념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결합할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리콰르가 해석학적 방법으로 채택하는 ‘우회의 어려운 길’에 속한다. 리콰르는 인식론을 아우르는 존재론적 해석학을 상징, 은유, 텍스트의 우회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해석학이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가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을 위해 택하는 성서 본문은 ‘마태의 산상설교’와 ‘누가의 평지설교’이다.<sup>43)</sup> 리콰르가 택한 마태의 산상설교와 누가의

42) 위의 글, 503.

43) 누가복음 6장 27절-31절에서 두 계명(새 계명: 27-30, 황금률: 31)은 가장 가까이 놓여

평지설교에는 동일한 문맥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황금률의 병렬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sup>44)</sup> 이 두 본문에서 황금률은 ‘은총의 경제’<sup>45)</sup> 속에서 새로운 해석을 획득한다. 은총이 언급되는 장은 윤리적 장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초윤리적 장이다. 누가 복음 6장에 나오는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초윤리적 계명인 원수사랑의 명령이 지배하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 사랑의 계명이 리코르가 ‘은총의 경제’라고 부르는 것에 근접한다. 은총의 경제는 ‘넘침의 논리’<sup>46)</sup>로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로 구획될 수 있다.<sup>47)</sup> 리코르는 이 두 논리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살펴보자.

리코르는 사랑의 계명이 황금률을 능가한다고 본다. 정의와 사랑의 대립은 기본적으로 등가와 과잉이라는 대립구조를 형성한다. 황금률은 등

---

있다. <sup>27</sup>“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sup>28</sup>“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sup>29</sup>“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sup>30</sup>“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sup>31</sup>“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의 본문 구성이 구문의 본래적 질서를 존중하는 반면, 마태복음에서 황금률은 7장 12절에 놓여 산상수훈의 끝에 자리한다. 이것은 5장 17절에서 시작하여 7장 12절로 마감하는 중간에 놓여 있는 원수사랑의 계명을 포함한다. <sup>517</sup>“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sup>544</sup>“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sup>712</sup>“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개역개정성서』.

44) Ricoeur, Paul, 최현, 앞의 글, 504.

45) 철학적 용례에서 ‘경제’라는 말은 동적인 존재방식, 운동, 활동을 의미한다. 김정현, <황금률의 철학적, 신학적 의미: 폴 리코르의 관점에서>, 달구벌기독교학술연구회, 『진리와 학문의 세계』, (대구: 2004), 각주 33, 129.

46) 신약성서에 들어있는 넘침의 논리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15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개역개정성서』.

47) 김정현, 앞의 글, 129-130.

가의 논리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알브레히트 딜레(Albrecht Dihle) 같은 해석학자는 황금률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될 여지가 있는 상호성 원리의 가장 저급한 표현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주의’라는 응보의 원리로 황금률을 해석한다. 리코르는 이런 해석을 통해서는 등가의 논리와 신약의 계명으로 정형화된 넘침의 논리의 화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sup>48)</sup>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황금률을 이론적으로 구체화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롤즈는 재화의 부족이라는 사회적 여건을 정의의 환경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정의의 환경으로부터 부족한 재화를 등가의 원리에 따라 나누는 정의실현이 필요하게 된다. 롤즈는 재화가 부족할 때 개인들이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의 최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를 대비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등가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의의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분배체계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보호를 얻어내려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의 두 번째 원칙은 “사실상 경제적·사회적 효율성이 가져온 불평등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자의 몫을 최대한 균등화하는 것을 의미한다.”<sup>49)</sup>

롤즈는 이런 분배체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 계명과 황금률의 양립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가. 리코르는 사랑의 계명이 황금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둘 사이의 양립이 가능해진다고 본다. 즉 사랑의 계명은 황금률 속에 있는 자기 이익을 향한 경향성을 타인을 향한 환대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사랑의 계명은 주고받음의 등가원

48) Ricoeur, Paul, 최현, 앞의 글, 505-506.

49) 위의 글, 508.

리 속에 있는 ‘하기 위함’을 은총의 경제 속에 있는 ‘때문에’로 대체한다. “네게 이미 주어졌기(혹은 은총이 내렸기) 때문에, 너는 답례한다”의 논리가 등가의 논리를 대체하는 은총의 경제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50)</sup>

리콥르에 따르면, 등가의 논리가 사랑의 계명으로 인해 재해석되는 것을 통해 사랑과 정의는 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 역시 황금률로부터 사랑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오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기독교적 사랑은 자기희생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자기희생이 정의의 원리를 거치지 않는다면, 그런 희생은 폭력으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또한 사랑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뺨을 돌려대라는 요구,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주라는 요구, 돌려받을 생각을 말고 빌려주라는 요구는 게으르고 비겁한 성격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공정성을 대표하는 등가의 논리를 거치지 않은 사랑의 계명은 실질적 실천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어떤 사람이 불공정한 사회적 관례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려 할 것인가? “사랑의 계명이 무도덕(nonmoral)이나 부도덕(immoral)으로 탈선하지 않고자 한다면, 그것은 황금률과 양립적인 것으로서,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황금률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황금률에 의해 재해석되어야 한다.”<sup>51)</sup> 이렇듯 황금률과 사랑의 계명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때만이 둘이 양립할 수 있으며 또한 실천적이 될 수 있다. 리콥르는 사랑과 정의의 상호 재해석을 통해 둘의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는 리콥르가 말하는 담론해석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양립가능을 보이는 이곳이 바로 기독교

50) Ricoeur, Paul, “Eth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s on the Golden Rule”, *Figuring The Sacred: Religion, Narrative, and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300.

51) 김정현, 앞의 글, 131-132.

교 윤리학이 생성되는 지점이라고 본다. 한 방향적 성격의 사랑과 양방향적 성격의 정의의 긴장 속에서 사랑이 정의를 해석하고, 정의가 사랑을 해석하는 바로 그 해석의 자리에서 기독교 윤리가 성립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약해 보면, 리콰르는 일견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이는 사랑의 담론과 정의의 원칙이라는 두 이념을 변증법을 통해 결합을 시도한다. 그가 시도하는 결합의 방식은 두 개념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찾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이념과 이념의 체계적 논리구조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 리콰르는 성서 안에 병렬구조 속에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두 담론인 황금률과 새 계명의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 사랑과 정의를 결합하는 해석학적 방법을 택한다. 리콰르는 정의의 원칙을 대변하는 황금률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공리주의 원칙과 동일시 할 경우 사랑과 정의의 대결구조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리콰르가 비판하는 것은 공리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황금률의 등가의 논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그릇된 해석이다. 그러므로 리콰르의 해결 방법은 ‘해석하라’는 요청에 응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해석의 자리에서 또한 기독교 윤리의 자리가 확보될 가능성이 열린다고 본다.

## 2. 사랑과 정의의 긴장된 중재의 텍스트 앞에서 출현하는 윤리적 주제

지금까지 리콰르의 논의를 따라 연합이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이는 사랑과 정의가 담론 해석을 통해 연합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사랑과 정의를 체계적 개념 분석이나 규범의 나열을 통해서도 두 대립되는 개념의 연합은 불가능하다. 리콰르는 이렇게 연합이 불가능한 개념이 하나의 텍스트 안에 병렬적으로 놓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개념의 연합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궁극적 목적은 두 개념의 연합에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그렇게 사랑과 정의가 연합되는 곳에서 기독교 윤리의 자리가 생성되며, 기독교 윤리 주체의 생성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에 있다.

리콤폴르는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저자, 첫 번째 독자 그리고 첫 번째 상황으로부터 삼중의 거리두기를 통해 텍스트가 자율성을 확보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리콤폴르는 독자의 천재성과 저자의 천재성의 일치를 해석학이라고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그에게 텍스트의 과제는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제 해석을 통해 밝혀낼 것은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텍스트의 사물 곧 텍스트의 세계가 된다. 리콤폴르에 따르면, 이제 텍스트는 저자의 것도 아닌, 독자의 것도 아닌, 텍스트 그 자체가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의 의미지평이나 독자의 의미지평에 의해 제한될 수 없는 텍스트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리콤폴르는 이 텍스트의 세계가 '지시범위의 확장'과 관계한다고 본다. 담론의 실물지시가 사라지는 곳에서 텍스트의 유사세계가 형성되고, 이 이 유사세계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sup>52)</sup> 리콤폴르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자기'의 탄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텍스트가 독자적인 지시영역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해석이 더 이상 저자의 의도도 아니고, 텍스트의 구조에 대해 체계적 분석도 아니라면, 이제 무엇을 해석해야 되는가? 리콤폴르는 하이데거를 따라 '해석하는 것은 텍스트 <앞>에서 전개되어 있는 일종의 세계-내-존재를 명료화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리콤폴르는 하이데거의 이해의 존재론에서 '가장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가능성들의 기투'라는 개념을 자신의 텍스트 이론에 접목시킨다. 그러므로 리

52) Ricoeur, Paul, Thompson, John Brookshire 편,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ssays on language, action, and interpretation*, 윤철호,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서울: 서광사, 1981), 250.

뢰르는 텍스트의 세계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텍스트에서 해석해야 할 것은 제안된 세계, 즉 가장 나 자신일 수 있는 가능성들 중의 하나를 투영하기 위하가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한 제안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텍스트의 세계, 이 유일한 텍스트에만 있는 고유한 세계이다.”<sup>53)</sup> 이러한 세계 앞에서 나는 새로운 ‘자기’로 탄생하는 것이다. 필자는 리뢰르가 말하는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윤리가 생성될 수 있는 자리이며, 또한 기독교 윤리 주체의 생성이 가능한 자리라고 본다.

사랑과 정의의 연합을 통한 기독교 윤리의 성립은 사랑과 정의의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텍스트로서의 산상설교와 평지설교라는 텍스트가 보여주는 텍스트의 세계 앞에서 해석되는 ‘나가 어떤 세계를 투영해 내느냐에 따라 그 길을 달리 할 것이다.

## V. 나가는 말

정의란 자기 몫을 정당하게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표현하는 개념이다. 근대 산업사회의 발달 과정에서 몫을 챙겨 받는 것은 인권의 성장과 관계했으며, 몫을 나누는 것이 정당할수록 정의로운 사회로 간주되었다. 몫을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 사회는 안정된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정의의 환경이 형성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무제한적 사랑이 요청 또는 강제된다면, 사람들은 그런 삶의 조건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정의와 사랑을 이원적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마도 두 개념이 화해를 이룰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

53) Ricoeur, Paul, 박병수 외, 앞의 책, 130.

가 추구해야하는 윤리적 지향점은 두 개념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화합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두 개념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기독교 윤리의 성립이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정의의 실현은 그 조건을 형성해 준다. 사회와 교회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무제한적 사랑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이 정의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정의 실현의 한계에 대한 결핍을 채울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랑과 정의는 분리된 개념으로 존재할 때보다는 연합된 개념으로 존재할 때 그 의미의 충만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사랑과 정의의 긴장된 중재의 길을 모색하는 리콰르의 텍스트 해석은 기독교 윤리의 자리를 생성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의 세계 앞에서 기독교 윤리에 기초한 윤리주체의 생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사랑과 정의의 연합을 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교회와 사회가 분리된 공동체로서 서로 다른 가치관에 의해 움직이는 이질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와 세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는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를 사회와 유리시켜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할 것이다. 필자는 기독교 윤리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회복의 지향을 위해 기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로는 오늘 교회에 대한 비판적 눈길을 극복할 수 없다. 정의를 사회 밖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사랑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분리하는 것으로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비신자들의 따가운 눈빛을 극복할 수 없다. 리콰르의 사랑과 정의의 긴장된 중재를 통한 사랑과 정의의 연합 가능성을 기늬해 보는 것은 바로 정의를 거

쳐 사랑을 이루고, 사랑의 조건으로서의 정의가 실행되는 기독교윤리의 자리를 만드는 길이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리콥르의 이론은 칸트의 의무론 속에서 펼친 정의 실천의 기본으로서의 정언명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의 이론은 정의실현을 위한 규범의 목록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을 통해 제시하는 것은 긴장이다. 양립가능해 보이지 않는 두 개념이 성서 텍스트 구조 속에서 어떻게 양립해 있는가를 보임으로써 두 개념의 일시적 공존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존은 해석을 통해 새로운 '자기'의 출현을 희망하게 한다. 이때 새로운 '자기'란 욕망에 흔들리는 '나'가 아니다. 여기서 기독교 윤리를 토대로 하는 윤리적 자아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형성된 윤리적 자아의 주체가 곧바로 실천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윤리적 주체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 자기를 개방할 수 있게 된다. 리콥르에게 개방이란, 해석이 "언어와 비언어의 접점 또는 언어와 삶의 체험(어떤 것이든)의 접점에서"<sup>54)</sup> 발생한다. 텍스트와 '나'가 만나 '텍스트의 세계 앞'에서 '자기'로 태어난 주체는 그 텍스트의 세계가 이끄는 의미 앞에서 새로운 자기, 곧 윤리적 주체로서의 자기의 생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주체는 다양한 실천을 구체화할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성서 텍스트 앞에서 생성된 기독교 윤리주체는 결국 성서 텍스트가 이끄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함을 내면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54) Ricoeur, Paul, 양명수, 앞의 책, 73.

## 참고문헌

- 그리스도교 철학연구소편, 『현대사회와 정의』,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5.
- 윤성우, 『폴 리콥르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4.
- Nygren, Anders,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 Ricoeur, Paul, 김웅권 역, 『타자로서의 자기 자신』, 서울: 동문선, 1990.
- \_\_\_\_\_, 박병수 외 공역,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서울: 아카넷, 1986.
- \_\_\_\_\_, 양명수 역, 『해석의 갈등』, 서울: 아카넷, 1969.
- \_\_\_\_\_, Thompson, John Brookshire 편, 윤철호 역, 『해석학과 인문사회과학』, 서울: 서광사, 1981.
- Sandel, Michael J.,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0.
- Simms, Karl, 김창환 역, 『해석의 영혼 폴 리콥르』, 서울: 엘피, 2009.
- Aristotle, 최명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창, 2008.
- Outka, Gene, 정경화 역, 『아가페: 기독교 사랑의 윤리적 분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김정현, 〈황금률의 철학적, 신학적 의미: 폴 리콥르의 관점에서〉, 『진리와 학문의 세계』, 대구: 달구벌기독교학술연구회, 2004, 119-132.
- 김종식, 〈칸트의 의무주의 윤리이론에 관한 리콥르의 해석연구〉, 『대동철학』, 서울: 대동철학회, 2007, 45-73.
- 김한식, 〈이야기 윤리학을 위하여: 폴 리콥르의 해석학을 중심으로〉, 『해석학 연구』, 서울: 한국해석학회, 2012, 199-246.
- 이상철, 〈본회퍼와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 『신학연구』, 오산: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2015, 59-87.
- 장욱, 〈에로스와 아가페: 인간적 사랑과 카리타스〉, 한국기독교철학회, 『기독교 철학』, 서울, 2002, 7-42.
- 서병창, 〈카리타스에 의한 에로스와 아가페의 종합〉, 『중세철학』, 서울: 중세철학회, 2004, 119-158.
- Ricoeur, Paul, 최현 역, 〈사랑과 정의〉, 『시민정치론』. 서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05, 490-512.

\_\_\_\_\_, 대전신학대학전망편집부 역, 〈계시관념의 해석학〉, 『신학전망』 65호, 대전: 대전신학대학출판부, 1984 여름.

\_\_\_\_\_, 대전신학대학전망편집부 역, 〈계시관념의 해석학 II〉, 『신학전망』 66호, 대전: 대전신학대학출판부, 1984 가을.

Ricoeur, Paul, "Ethical and Theological Considerations on the Golden Rule", *Figuring The Sacred: Religion, Narrative, and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293-302.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폴 리콰르의 해석학을 통해 사랑과 정의의 연합 가능성을 타진한 후 그 연합의 자리에서 기독교 윤리주체의 생성이 가능함을 보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아가페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사랑 개념은 많은 경우 공정성으로 대표되는 정의 개념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리콰르는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을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리콰르는 이를 위해서는 이웃카가 제시한 기독교의 사랑에 관한 ‘기본적 규범내용’을 분리하는 작업에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비판적 관점에서 사랑의 이념은 담론의 해석을 통해 이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리콰르는 성서에 들어있는 사랑담론의 특성을 시적 상상력의 영역에 속하는 ‘칭송, 명령, 은유의 힘’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리콰르는 사랑과 대립되는 정의의 담론을 존 롤즈의 정의론으로 보려한다. 리콰르에게 정의는 반공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사랑담론과 정의의 원칙의 해석을 통해 리콰르는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결합을 시도한다. 그가 이러한 결합을 위해 채택하는 것은 ‘마태의 산상설교’와 ‘누가의 평지설교’이다. 이 두 텍스트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새 계명과 황금률의 병렬이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총의 경제는 ‘넘침의 논리’로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로 구획될 수 있다. 그는 등가의 논리가 사랑의 계명으로 인해 재해석되는 것을 통해 사랑과 정의는 연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텍스트 앞에서 새로운 자기이해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리콰르는 이 지점에서 기독교 윤리주체의 자리가 확보된다고 본다.

**주제어:** 폴 리콰르, 사랑, 정의, 넘침의 논리, 등가의 논리